	보도자료		
	보도	2016. 4. 13.(수) 조간	배포
담당부서	신용감독국	장복섭 국장(3145-8370), 김재호 팀장(3145-8390)	

제 목 : 2016년도 주채무계열(39개) 선정 결과

- (선정대상) '15년말 현재 계열 신용공여액이 1조 3,581억원 이상인 계열
- (선정결과) 금융감독원은 39개 계열을 '16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전년 대비 2개 감소)
 - 홈플러스, 금호석유화학 및 태영계열이 신규 편입, '15년도 주채무계열중 동부,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 하이트진로계열이 제외*
 - * 동부계열은 동부제철의 계열분리('15.5월),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계열은 차입금 상환 등에 따른 신용공여액 감소, 하이트진로계열은 선정기준금액 증가의 영향으로 제외
- (신용공여액) 주채무계열에 대한 '15년말 신용공여액은 300.7조원으로 전년(303.0조원) 대비 2.3조원(△0.8%) 감소
 -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1,939.1조원)에서 주채무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16.7%) 대비 1.2%p 감소
- (주채무계열 순위) 5대 계열*중 삼성(2위→1위)과 현대자동차계열(1위→2위)의 순위가 변동된 가운데, S-OIL(25위→20위) 등 17개 계열은 순위가 상승하였고, 동국제강(17위→23위) 등 12개 계열은 하락
 - * (1위) 삼성, (2위) 현대자동차, (3위) SK, (4위) 현대중공업, (5위) LG
- (향후계획)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에 대해 5월말까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 등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예정

※ 붙임 : 201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1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I.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1 선정기준 신용공여액

- '1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 3,581억원*으로 '15년(1조 2,727억원) 대비 854억원(6.7%) 증가

* 전전년말('14년말)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1,810.9조원)의 0.075%

※ '17년 선정기준 신용공여액 : 1조 4,543억원(+962억원)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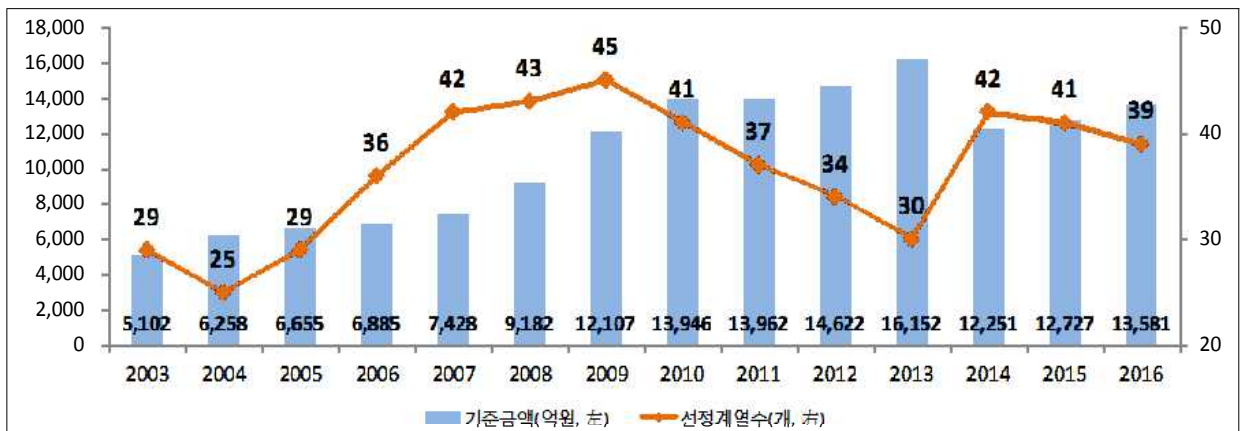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전년말 총신용공여액 (해당연도)	1,615.2조원 (‘11년말)	1,633.4조원 (‘12년말)	1,697.0조원 (‘13년말)	1,810.9조원 (‘14년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1조 6,152억원	1조 2,251억원	1조 2,727억원	1조 3,581억원

2 '1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39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어 전년(41개)보다 2개 감소
 - (신규편입: 3개) 홈플러스계열('16년 27위), 금호석유화학계열('16년 33위), 태영계열('16년 39위)
 - (제 외: 5개) 동부계열('15년 19위), 현대산업개발계열('15년 35위), 풍산계열('15년 39위), SPP계열('15년 40위), 하이트진로계열('15년 41위)

- [동부] 동부제철의 계열분리(15.5월)로 인해 동부계열의 신용공여액 대폭 감소
-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 현대산업개발(15년 35위), 풍산(15년 39위), SPP(15년 40위)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함에 따라 제외
- [하이트진로] 신용공여액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액의 증가(+854억원)로 제외

<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현황 >



□ 39개 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이 담당

○ 신규편입 계열은 신용공여액 규모 및 주채권은행의 편중 완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금호석유화학: 산업, 태영: 하나, 홈플러스: 국민)

은행명	개수	담당 주채무계열
우리	13	¹ 삼성 ⁵ LG ⁶ 포스코 ⁸ 한화 ¹⁰ 두산 ¹³ 효성 ¹⁵ CJ ¹⁷ 대림 ²¹ 코오롱 ³¹ 한국타이어 ³⁵ 아주산업 ³⁶ 한라 ³⁷ 이랜드
산업	12	⁹ 대우조선해양 ¹² 한진 ¹⁷ STX조선해양 ¹⁸ 금호아시아나 ²³ 동국제강 ²⁴ 대우건설 ²⁶ 한진중공업 ²⁹ 현대 ³⁰ 장금상선 ³² 하림 ³³ 금호석유화학 ³⁸ 한솔
하나	6	² 현대자동차 ³ SK ⁴ 현대중공업 ¹¹ GS ³⁴ 세아 ³⁹ 태영
신한	4	⁷ 롯데 ¹⁴ LS ¹⁹ OIL ²⁰ S-OIL
국민	3	²² KT ²⁵ 신세계 ²⁷ 홈플러스
농협	1	²⁸ 성동조선

* 출처: 순위, 음영: '16년 신규편입 계열

II. 신용공여 현황

1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현황

- '15년말 현재 금융기관(은행·여전·보험·종금)의 총신용공여액은 1,939.1조원으로 '14년말(1,810.9조원) 대비 128.2조원(7.1%) 증가
 - 보험권역의 신용공여액은 전년대비 13.4조원 증가(80.4조원 → 93.8조원)하여 16.6%의 증가율을 시현
 - 각 금융권역별로는 국내은행 99.1조원(+6.2%), 여전 12.9조원(+12.6%), 외은지점 2.6조원(+9.2%), 종금 0.2조원(+37.2%) 증가

금융권역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A)	'15년말(B)	증감(률) (B-A)
국 내 은 행	1,472.4	1,512.1	1,598.8	1,697.9	99.1 (6.2%)
외 은 지 점	26.0	27.1	28.6	31.2	2.6 (9.2%)
여 전	71.4	92.5	102.6	115.6	12.9 (12.6%)
보 험	63.5	65.0	80.4	93.8	13.4 (16.6%)
종 금*	0.2	0.3	0.5	0.6	0.2 (37.2%)
총 계	1,633.4	1,697.0	1,810.9	1,939.1	128.2 (7.1%)

* 우리종합금융 1개사만 전업 종합금융업을 영위중

2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 금년 주채무계열(39개)에 대한 '15년말 신용공여액은 300.7조원으로 전년(303.0조원*) 대비 2.3조원(△0.8%) 감소

* '15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41개 계열 기준

-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16.7%) 대비 1.2%p 감소*

*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비중 : '12말 15.9% → '13말 16.6% → '14말 16.7% → '15말 15.5%
(주채무계열 수) (30개) (42개) (41개) (39개)

<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추이 >



□ (5대 계열) 5대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24.3조원으로 전년 (124.7조원) 대비 0.4조원(△0.3%) 감소

* 삼성, 현대자동차, SK, 현대중공업, LG

5대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순위	계열명	'13년말	'14년말(A)	'15년말(B)	증감(률) (B-A)
1	삼성	28.5	29.6	33.4	3.8 (12.8%)
2	현대자동차	29.1	31.6	32.6	1.0 (3.1%)
3	SK	20.0	24.5	22.5	△2.0 (△8.3%)
4	현대중공업	17.7	21.4	19.5	△1.9 (△8.8%)
5	LG	17.4	17.5	16.3	△1.2 (△7.1%)
5대 계열 신용공여 합계		112.7	124.7	124.3	△0.4 (△0.3%)

□ (순위변동) 기존 36개 계열중 17개 계열은 순위가 상승하였고 12개 계열은 하락(7개 계열은 전년과 동일)

	변동폭	해당 계열
상승	5단계	STX조선해양(21→16), S-OIL(25→20), 코오롱(26→21), 하림(37→32)
	3단계	롯데(10→7), 한화(11→8), 대우조선해양(12→9), 장금상선(33→30)
	1~2단계	성동조선(30→28), 세아(36→34), 삼성(2→1), CJ(16→15), 대림(18→17), OCI(20→19), KT(23→22), 한진중공업(27→26), 한국타이어(32→31)
하락	△5~6단계	동국제강(17→23), 아주산업(29→35), 한라(31→36)
	△3~4단계	GS(7→11), 한진(8→12), 금호아시아나(15→18), 이랜드(34→37)
	△1~2단계	대우건설(22→24), 현대자동차(1→2), 두산(9→10), 신세계(24→25), 현대(28→29)
동일	-	SK(3), 현대중공업(4), LG(5), 포스코(6), 효성(13), LS(14), 한솔(38)

Ⅲ. 주채무계열 소속계열회사 현황

- (전 체) '16년도 주채무계열(39개)의 3월말 현재 소속계열회사 수는 4,443개로 '15년도 주채무계열(41개, 4,370개)에 비해 73개 증가
 - [신규편입] 홈플러스 4개(국내 4개), 금호석유화학 19개(국내 10개, 해외 9개) 태영 46개(국내 43개, 해외 3개)등 총 69개
 - [계열제외] 동부 58개(국내 25개, 해외 33개), 현대산업개발 27개(국내 17개, 해외 10개), 풍산 19개(국내 9개, 해외 10개), SPP 3개(국내 3개), 하이트진로 21개(국내 13개, 해외 8개) 등 총 128개
- ※ '15년, '16년 연속 선정된 주채무계열(36개)의 소속기업체 수는 175개 증가(4,199개→4,374개)

주채무계열 소속계열회사 현황

(단위 : 개)

	국내법인			해외법인			합 계		
	'15.3말	'16.3말	증감	'15.3말	'16.3말	증감	'15.3말	'16.3말	증감
주채무계열	1,354	1,300	△54	3,016	3,143	127	4,370	4,443	73
5대 계열	290	289	△1	1,256	1,362	106	1,546	1,651	105
6대 이하 계열	1,064	1,011	△53	1,760	1,781	21	2,824	2,792	△32

* '15.3말은 '15년도 주채무계열(41개) 기준

- (계열별) 삼성(554개), LG(360개), 롯데(344개), 현대자동차(333개), SK(323개) 順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음
 - * 국내법인 기준으로는 롯데(93개), SK(86개), GS(69개), LG(67개), CJ(62개) 順
- 현대자동차 및 SK계열은 주로 해외계열회사 증가(현대차: 65개, SK: 35개)에 기인하여 총계열회사 수가 '15.3월말 대비 각각 65개(24.3%), 39개(13.7%) 증가

소속계열회사 현황(상위 5개)

(단위 : 개)

	국내법인수				해외법인수				총계열사수		
	'15.3말	'16.3말	증감		'15.3말	'16.3말	증감		'15.3말	'16.3말	증감
롯데	80	93	13	삼성	496	495	△1	삼성	563	554	△9
SK	82	86	4	LG	290	293	3	LG	353	360	7
GS	79	69	△10	현대차	217	282	65	롯데	333	344	11
LG	63	67	4	롯데	253	251	△2	현대차	268	333	65
CJ	65	62	△3	SK	202	237	35	SK	284	323	39

IV. 향후 계획

- (재무구조 평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9개 계열에 대해 담당 주채권은행이 5월말까지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 평가 실시
-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관리 대상계열)을 체결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
 - * 부채비율 구간별로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 체결
- 관리대상계열 및 재무구조 악화 계열에 대해서는 상반기 및 수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주채권은행에 대해 매반기 약정이행 점검 및 매분기 자구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약정 미이행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토록 지도
- 약정체결 계열 등의 채권은행 대출채권 변동내역을 점검하여 부당한 여신회수 등 주채무계열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참 고

2016도 주채무계열 선정 현황

(단위 : 개)

순위		계열명	계열주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소속 계열사수
'16년	'15년					
1	2	삼성	이건희	삼성전자(주)	우리	554
2	1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자동차(주)	하나	333
3	3	SK	최태원	에스케이(주)	하나	323
4	4	현대중공업	정몽준	현대중공업(주)	하나	81
5	5	LG	구본무	(주)엘지	우리	360
6	6	포스코	-	(주)포스코	우리	141
7	10	롯데	신격호	롯데제과(주)	신한	344
8	11	한화	김승연	(주)한화	우리	284
9	12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산업	35
10	9	두산	박용곤	(주)두산	우리	147
11	7	GS	허창수	(주)지에스	하나	177
12	8	한진	조양호	(주)대한항공	산업	84
13	13	효성	조석래	(주)효성	우리	118
14	14	LS	구태회	(주)엘에스	신한	89
15	16	CJ	이재현	씨제이(주)	우리	262
16	21	STX조선해양	-	STX조선해양(주)	산업	11
17	18	대림	이준용	대림산업(주)	우리	38
18	15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아시아나항공(주)	산업	59
19	20	OCI	이수영	오씨아이(주)	신한	84
20	25	S-OIL	-	에쓰오일(주)	신한	3
21	26	코오롱	이용열	(주)코오롱	우리	65
22	23	KT	-	(주)케이티	국민	52
23	17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주)	산업	30
24	22	대우건설	-	(주)대우건설	산업	27
25	24	신세계	이명희	(주)신세계	국민	42
26	27	한진중공업	조남호	(주)한진중공업 홀딩스	산업	17
27	-	홈플러스	-	홈플러스	국민	4
28	30	성동조선	-	성동조선해양(주)	농협	3
29	28	현대	현정은	현대상선(주)	산업	73
30	33	장금상선	정태순	장금상선(주)	산업	34
31	32	한국타이어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우리	50
32	37	하림	김홍국	제일홀딩스(주)	산업	97
33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산업	19
34	36	세아	이순형	(주)세아홀딩스	하나	50
35	29	아주산업	문규영	아주산업(주)	우리	32
36	31	한라	정몽원	(주)한라	우리	63
37	34	이랜드	박성수	(주)이랜드월드	우리	145
38	38	한솔	이인희	한솔홀딩스(주)	산업	67
39	-	태영	윤세영	태영건설	하나	46
합 계			-	-	-	4,443